

숭실철학강좌

- 제1회 (1999. 05. 13): 동서철학 매개의 미래 -조가경
제2회 (1999. 09. 09): 한국미의 조명 -조요한
제3회 (1999. 11. 18): 생활인의 철학 -김태길
제4회 (2000. 03. 16): 한국철학의 정체와 전망 -류승국
제5회 (2000. 05. 18): 플라톤 철학은 아직도
유효한가? -박종현

초 청 장

제 6 회 숭실철학강좌



숭실대학교 인문대학 철학과

☎156-743 ·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5동 1-1
tel.: (02) 820-0370 / fax: (02) 824-4382
e-mail: philosophy@saint.soongsil.ac.kr
<http://philosophy.soongsil.ac.kr>

- ▶일시: 2000년 9월 21일(목) 오후 5시
- ▶장소: 숭실대학교 한경직기념관 소회의실

주최: 숭실대학교 인문대학 철학과
후원: 숭실대학교 철학과 동문회

모시는 말씀

아침저녁으로 한기를 느끼게 되고, 아파트 단지 경계석을 따라 코스모스가 긴 행렬을 이루고, 집안 권속들과 벌초 날짜를 잡고 하는 것으로 보아 가을도 상당히 세력을 넓힌 듯 합니다.

자연은 변함 없이 제 길을 묵묵히 잘도 갑니다. 서두르는 일도 없고 도(度)를 넘거나 못 미치는 일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물 흐르듯 막힘 없이 진행되어 나갑니다. 세상 만사도 그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요, 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철학하게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철학은 일견 할 일없는 사람들의 공연한 일 같이 보입니다. 그런가 하면 공기나 물처럼 우리의 삶에 없어서는 안될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철학을 공연한 일 같다고 하는 것은 그 자명성 때문일 것이고, 필수 불가결하다는 것은 그것의 정초(定礎)하는 특성을 염두에 두고서 하는 말일 것입니다.

이러한 철학의 세계를 한번 '구경'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경험이 많고 노련한 '가이드'를 쫓아서 말입니다. 후회하지 않을 시간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2000년 9월 일

송실대학교 인문대학 철학과장 한 석 환
송실대학교 철학과 동문회장 이 승 하

행/사/순/서

▶사 회: 박 해 용 박사

17:00-17:10 인사말 · 강사소개

17:10-18:00 송실철학강좌

강 사: 최 명 관 교수
(송실대학교 철학과 명예교수)

제 목: 철 학 에 의 권 유

18:00-18:30 질의 · 응답

〈강사소개〉

- 서울대학교 철학과와 동 대학원 졸업. 동국대 철학박사. 아이오와, 노스웨스턴, 하이델베르크, 파리 대학 등에서 연구
- 송실대학교 철학과 교수, 문리대 학장, 한국기독교문화연구소장, 철학연구회 회장 역임. 제9회 서우철학상(1997) 수상
- 저-역서: 『의미의 철학』, 『데카르트』, 『논리학개론』, 『캄시러의 철학』, 『현실의 구조』, 『서양철학사』(람프레히트), 『국가의 신화』(캄시러), 『플라톤의 대화』, 『니코마코스 윤리학』(아리스토텔레스), 『앙띠 오이디푸스』(들뢰즈-가타리) 등